

“좋은 사람들 많지만, 이주민 향한 폭언·욕설도 여전”

광주 사는 이주민들의 이야기

미얀마 출신 귀화 조애정씨
“외국인에게도 따뜻한 세상되길”
케냐 출신 유학 온 9년차 엘비스씨
“취직하고 싶지만 광주 일자리 없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주민들을 만나 그들이 살고 있는 광주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광주 광산구 한 카페에서 만난 미얀마 출신 조애정(초초아이젠, 64)씨는 목사로 활동하면서 어느덧 한국생활 19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 미얀마 교회에서 남편 임관진 목사와 함께 광주에 거주하는 20여명의 미얀마 이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장흥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광주로 거처를 옮겨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있다.

그녀는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피해를 겪으며 힘들게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은 사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 듣고 무시



조애정(64)씨가 광주 광산구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힘든 일을 토로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월급도 제때 못 받는 친구들도 있고 최대 3개월간 밀린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나는 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미얀마 반찬과 음식을 같이 만들고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느꼈던 한국의 따뜻함을 많은 이들이 느끼길 바라며 자신의 한국생활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조씨는 “행정·은행 업무 등을 보러 갈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는 직원들이 너무 고맙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귀찮아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준다”며 “고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공공기관과 연계해 통·번역 일도 할 수 있었다. 우

리 교회에 오는 이주민들도 저같은 경험을 느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 활동과 노력을 계속 할 것을 다짐했다.

조씨는 “외국인들도 차별을 겪지 않는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갈길 바란다”며 “봉사 활동도 지금처럼 꾸준히 하고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광주는 저에게 제2의 고향 같아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2017년에 케냐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엘비스(30)씨도 9년차 한국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 공부



케냐 출신 유학생 엘비스(30)씨.

엘비스 제공

를 하던 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광주를 방문했다. 외국인인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는 모습과 광주 시민들의 따뜻한 감정을 느꼈던 광주의 첫 인상이 좋았다고 기억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기후 환경에 적응이 어려워 고생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광주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원을 다니다 휴학을 한 뒤 공부와 아르바이트,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시민합창단 활동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

엘비스씨는 “광주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직원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며 “센터를 통해 일자리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외국인들도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엘비스씨는 광주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며 취직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생기길 소망했다.

그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광주에 취직해서 전공인 기계공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쌓고 실무 경험도 하고 싶다”며 “한국에 다양한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광주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이어 “하지만 광주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 큰 고민이다. 휴학을 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며 “많은 기회가 생겨 취직을 통해 지금껏 이어온 광주의 인연을 지속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광주 중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적발... 학교장 등 3명 경고

광주광역시의회 중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조성 및 운영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7일 해당 학교장 등 관계자 3명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내렸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는 회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모아 운동부 지도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 결과, 학부모들이 회비 형태로 매달 1인당 5만원~10만원씩 불법 찬조금을 모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학부모회비가 실제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금품 등으로 전달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운동부 지도자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자체적으로 종결했다.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조성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에게 운동부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 조성 목인과 일부 복부 규정 위반 사항은 다른 비위 사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전남 오늘 최고 35도, 당분간 무더위

1일 5~20mm 소나기 예보

광주·전남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0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최저기온은 22도~24도,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평년보다 4~7도 가량 높게 예보됐다.

화요일인 1일은 최저기온은 22~24도, 최고기온은 28~33가 예보됐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전남 곳곳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20mm의 비가 내리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2일 수요일 역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최저기온 22~25도, 최고기온 29~34도가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와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 오르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관리 등에 유의하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대상 지역은 광주 전역과 전남 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영암 등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 한국철도공사 기업탐방

진로 탐색·산업현장 이해도 제고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는 지난 25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업탐방을 진행했다.

29일 광주대에 따르면 국제커리어와 연계해 실시한 이날 오전 행사에서는 직장생활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비즈니스 매너 특강을 통해 직장 매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터 실제 사례를 통한 베스트 & 워스트 직장인 유형 분석,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회생활 매너 전략 등을 살펴봤다.

이어 오후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를 방문해 철도산업의 구조와 역할, 다양한 직무 소개 및 채용 정보 등을 생생히 접하며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는 지난 25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업탐방을 진행했다.

광주대 제공

특히 코레일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현장 브리핑을 통해 철도산업 내 다양한 커리어 경로를 직접 듣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년은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기업을 실제로 방문하고, 직장 생활의 기본을 특강으로 먼저

배워보니 훨씬 현실감 있게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전했다.

조유근상무센터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및 공공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홍복학원 법인 정상화에 속도 낸다

광주시교육청, ‘정상화 대책위’ 개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6일 분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학교법인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 정상화 추진 경과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고인자 시교육청 정책국장 등 시교육청 국·과장 등 내부 위원 5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교수, 홍복학원 임시이사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들은 홍복학원 정상화 추진 상황, 소송진행 현황 등 총 5건의 주요 안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판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 문제 해결, 서진여고 학교 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 여러 현안 때문에, 조속한 홍복학원 정상화가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시교육청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통학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인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간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행정적·법적 지원을 지속해 홍복학원 정상화를 조속히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교육청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행정적·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